

토요일

업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9:3-6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묵상

우리말 ‘없다’와 ‘업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겨 나거나 일어나지 않다’라는 뜻인 반면에, ‘업다는 사람이나 물건을 등에 지다’, ‘옷놀이에서 한 말이 다른 말을 어우르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다른 말 ‘없다’와 ‘업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업따’로 발음합니다. ‘없다’와 ‘업다’의 발음이 같다는 사실에서 등에 아기를 업은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으면 엄마 눈에 아기가, 아기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야 그렇지 않겠지만 아기는 순간 당황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업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괴로움이 큼니다.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친 우리를 업고 계신 하나님, 주님이 안보이는 그때가 실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바위 꼭대기에 둥지를 둡니다. 짓기가 어려울수록 둥지는 안전한 법이니까요. 때가 되어도 새끼가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미는 둥지를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끼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부드러운 것들은 다 날아가고 거친 바위와 나뭇가지들이 새끼를 찢러대기 시작하지요. 그런 뒤에 어미독수리는 둥지에 있는 새끼를 공중에서 밀어 떨어뜨리는데,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는 날개를 버둥거리며 안간 힘을 쓰지만 결국은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이젠 죽었다 싶을 때,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가 큰 날개를 펴서 땅에 닿기 직전의 새끼를 자신의 등으로 받아냅니다. 그런 뒤에 다시 둥지 위로 올라가고, 다시 떨어뜨리고, 날개로 받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끼독수리는 혼자서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일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신 32:11)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독수리를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모든 고난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Prayer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울지 않게 하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 묵상

요절한 천재가 바라본 슬픔의 성모/페르콜레지의<스타바트 마테르>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해도 자식의 주검 앞에 선 어미의 심정을 무슨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명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심도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몸을 통해 낳았고, 점차 커가는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 봤던 어미인데 이 찢어지는 마음을 어쩌면 종단 말입니까?

'성자 예수가 달려 있는 십자가 아래 눈물로 서 있는 슬픔의 성모/ 겹이 당신의 마음을 뚫고 지나감으로/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복되신 독생자의 어머니-중략-동정녀 성모여! 심판의 날에 부디 나를 지켜주사/ 내 육체가 죽을지라도 영혼은 천국의 영광 안에 있게 하소서.'

'슬픔에 잠겨 서 있는 어머니,라는 뜻의 라틴어 '스타바트 마테르 돌로로 사,(Stabat Mater Dolorosa)의 일부분입니다. 원작자가 확실하지 않으나 13 세기경에 지어진 이 기도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실어 곡을 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곡만도 600 곡이 넘는다고 하니 이 기도문이야말로 음악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기에 매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음악사에 기록된 작곡가 중 가장 짧게 살다 간 페르골레지(G. B. Pergolsi, 1710-36)의 작품이 눈에 띕니다. 그의 음악은 26 년의 짧은 삶 만큼이나 간결하지만 작품성에 대해선 당시의 비평가로부터 황금보다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작 〈스타바트 마테르〉에는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감지한 새파란 청년의 예술혼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네 개의 현악기로 구성된 단출한 편성이지만 음악의 깊이는 상당합니다. 두 명의 여성 독창자는 아들을 잃은 사람 어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어머니 역할을 해낸 마리아의 수평적 구조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하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 여자는 비탄을 노래하고, 다른 한 여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에서 다름을 바라보지만 끝부분의 '아멘, 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함께 찬미하며 하나로 마무리 짓습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겐 빛의 날입니다. '아멘,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